

한국청동기시대 연구와 송국리유적의 의의

李基星 (韓國傳統文化大學校)

1. 한국고고학의 시대 구분

한국고고학은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삼국시대(三國時代) 등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이 중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는 일반적인 고고학의 시대 구분이며,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는 한국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이다. 물론 빗살무늬토기시대(櫛目文土器時代, 신석기시대),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 청동기시대)와 같은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라는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다. 각 시대별 연대의 경우, 구석기시대는 수십만 년 전에서 B.C. 1 만년까지, 신석기시대는 B.C. 1,500 년까지, 청동기시대는 B.C. 300 년까지,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B.C. 100 년까지, 원삼국시대는 A.D. 300 년까지이다.

2. 한국 청동기시대의 문화 양상

한국 청동기시대의 경우, 비파형동검, 무문토기, 도작농경, 고인돌의 축조 등을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초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토기의 변화와 청동기의 등장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초기(B.C. 1500~1300)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로서, 각목돌대문토기(刻目突帶文土器)를 사용하면서 강변에 마을을 만들고 밭농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B.C. 1300~900)는 공렬토기(孔列土器)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二重口緣短斜線文) 등이 사용되며, 고인돌, 석관묘 등의 무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밭농사와 함께 쌀농사가 시작된다. 중기(B.C. 900~500)는 비파형동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로, 외반구연토기(外反口緣土器), 삼각형석도, 일단병식마제석검(一段柄式磨製石劍) 등이 특징적이다. 집약적 도작농경을 바탕으로 대규모 취락이나 환호취락(環濠集落)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잘 알려진 송국리유적(松菊里遺跡)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후기(B.C. 500~300)는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가 사용되는 시기이다.

□ 도구

청동기시대의 토기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문양이 없는 무문토기가 사용된다. 시기에 따라 각목돌대문토기, 공렬토기,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외반구연토기, 점토대토기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기종 구성은 심발(深鉢), 호(壺), 천발(淺鉢), 두형토기(豆形土器) 등으로 단순하다. 청동기시대의 석기는 마제석기 뿐으로, 석촉, 마제석검, 석창 등의 수렵 도구 외에 농경과 관련된 반월형석도, 석겸(石鎌), 목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태형합인석부(太型蛤刃石斧), 주상편인석부(柱狀片刃石斧), 유구석부(挾入石斧), 끌(鑿)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실생활에는 많은 종류의 목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아있는 유물이 많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청동기시대라는 시대 명칭에 비해 실제 출토되는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뿐으로, 초기철기시대가 되어야 청동거울 등의 다양한 청동기가 제작, 사용된다. 비파형동검은 일상에 사용되는 도구라기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주거지와 취락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크게 장방형계와 원형계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에는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사용되다가 중기와 후기가 되면 소형의 방형과 원형주거지가 사용되는데, 특히 원형주거지는 송국리문화의 특징적인 주거지 형태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지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하는 것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제도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은 구릉 위나 강변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특징적인 취락의 형태로는 환호취락(環濠集落)을 들 수 있다. 환호는 원형과 방형의 형태로 마을을 둘러싼 것이며, 이와 달리 구릉의 정상부를 소규모로 구획하는 환구(環溝)가 있다. 환호가 마을을 지키는 방어 용도라면 환구는 의례공간을 구분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 무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지석묘이며, 그 외에도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주구묘(周溝墓) 등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전기부터 본격적으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전기에는 지석묘와 석관묘, 주구묘, 중기 이후에는 석관묘, 옹관묘, 석개토광묘가 주를 이룬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만들어지는 데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 묘역식(墓域式) 지석묘라고 불리는 대형의 지석묘도 조성된다.

□ 생업 경제

청동기시대의 생업 경제는 농경과 수렵, 채집, 어로 등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취락의 입지에 따라 주된 생업경제의 종류가 달랐다. 원시적인 밭 농사의 경우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지만, 쌀농사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단계에 대규모의 논이 발견되며, 그 외 많은 유적에서 탄화된 쌀과 잡곡이 발견되고 있다.

3. 청동기시대 중기의 부여 송국리유적

1974년 우연히 발견된 석관묘를 지역 주민이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부여 송국리유적은 1975년 1차 발굴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27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 조사 결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원형의 주거지, 외반구연토기 등이 조사되면서, 새롭게 한국 청동기시대 중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부여 송국리유적은 현재까지 유적 범위의 10% 미만 정도만 발굴 조사되었지만, 100여동 이상의 주거지, 다수의 저장공, 굴립주건물 등과 함께 수백 m에 달하는 목주열(木柱列) 등이 조사된, 남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취락이 만들어진 것은 수전 도작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으로 부여 송국리유적을 표지로 하는 송국리문화가 설정되었으며, 송국리문화는 남한의 서남부 대부분 지역을 점하고 있다. 송국리문화는 남해안 지방으로 확산되고, 일본 열도로 넘어가 일본 야요이문화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4. 한국 청동기시대와 일본 야요이시대

한국과 일본은 선사시대부터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 큐슈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토기가 발견되고,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는 큐슈지역의 조몽토기와 코시타케(腰岳)의 흑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청동기시대에도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송국리문화의 다양한 문화 요소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작 농경의 기술과 그와 관련된 반월형석도 등의 다양한 농경 도구와 마제석검 등의 석기, 송국리형주거지, 지석묘 등 다양한 물질문화요소 외에 사람들도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문화 요소는 일본 야요이문화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송국리문화의 요소들이 그대로 일본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각 지역에서 필요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적으로 변용된 형태로 야요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 교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단방향향이 아니라 일본 야요이문화요소가 한반도에 전파되어,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는 야요이토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 청동기시대와 일본 야요이시대의 문화교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반도의 남해안과 구주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동일본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그림 1. 靑銅器時代の土器各種



그림 2. 靑銅器時代の石器各種



그림 3. 靑銅器時代の木器各種



그림 4. 細長方形住居址 (蔚山校洞里)



그림 5. 円形住居址 (松菊里式住居)



그림 6. 環濠集落 (昌原南山)



그림 7. 環溝 (安城盤諸里)



그림 8. 水田 (蔚山無去洞玉峴)



그림 9. 周溝墓 (春川泉田里)



그림 10. 畑と住居址 (晋州大坪里)



그림 11. 甕棺墓 (益山石泉里)



12. 石棺墓 (大丘東川洞)



그림 13. 墓域式支石墓 (山淸梅村里)



그림 14. 石棺墓 (宝城東村里)



그림 15. 松菊里遺跡遠景



그림 16. 松菊里遺跡 1 号石棺墓出土遺物